# 唐宋代의 明堂儀禮 변천과 그 天文宇宙論적 운용

金 一 權*

Ⅰ. 서론 : 唐代 이전의 明堂儀禮
Ⅱ. 唐高祖 시기 秋季 祭天으로서의 明堂大享 제도화
Ⅲ. 唐太宗 시기의 명당 건립 논쟁
Ⅳ. 唐高宗 시기의 明堂 九室說과 五室說 논쟁
Ⅴ. 則天武后 시기의 명당 건립과 天文 紀元儀禮적 성격
  1. 則天의 明堂 落成과 新年 祭天儀禮로의 격상
  2. 明堂의 天文曆法的 聽朔儀禮 거행
Ⅵ. 唐玄宗 시기 明堂 圓丘祀와 九宮貴神儀禮 대두
Ⅶ. 宋代의 明堂儀禮와 九宮儀禮에 보이는 천문우주론적 세계관
  1. 宋代의 天文曆法的 太一九宮儀禮
  2. 宋代의 明堂儀禮와 報本 祭天儀禮적 성격
Ⅷ. 결론

## Ⅰ. 서론 : 唐代 이전의 明堂儀禮

天文思想이 동양사상사에서 어떠한 기능과 의의를 가지고 활용되는가를 들여다보는 데에는 무엇보다 儀禮의 영역이 주목된다. 유가의 禮樂思想에 따르면 禮는 단순히 인간의 형식 문제만 규정짓는 체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인간을 하늘의 질서에 끊임없이 일치시킴으로써 天人의 이상적인 조화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특히 祭天儀禮는 하늘에 대한 제사 체계인 만큼 그러한 천문과 인문의 교섭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주요 테마이다. 중국의 國家 祀典制度를 들여다보면 이같은 천문사상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실마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1]

---

* 서울대 강사

1) 김일권, 「魏晋南北朝 시기의 郊祀 制度 변천과 天文思想」(『震檀學報』 86호, 진단학회, 1998); 김일권,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硏究 : 漢唐代 祭天儀禮와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文圖를 중심으로」(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2)

그 중에서도 明堂制度는 天人感應적인 天文思想이 짙게 반영된 의례 제도의 하나로 주목된다. 明堂은 先秦시기의 儒家 사상에서 王道 政治의 이상이 담겨있는 우주론적 제도로 또는 天命을 구현하는 지상의 聖所로 제시된 개념이다.2)

그러한 明堂을 국가 의례 제도의 하나로 확립한 것은 漢武帝 시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때의 명당제도는 『史記·封禪書』에 따르면 黃老學적 배경에서 입론되었으며, 上帝로서의 太一神과 五帝神을 主神으로 제사하고 있다. 太一神은 冬至 圓丘 祭天儀禮의 主神이기도 한데, 천문우주론의 중심으로 여겨진 北極星에 대한 신격이다. 무제시기 泰山 기슭에 건립된 明堂은 泰山 封祭를 올리기 전에 미리 告天하는 장소로 또는 여러 제후들이 천자를 朝覲하는 거소로 이용되었다. 이는 명당제도가 천자의 지방 巡狩 과정에서 천자의 권위를 재천명하는 泰山 封禪祭와 더불어 제후들에 대한 정치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정치적인 기능으로 운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東漢의 명당제도는 辟雍, 靈臺와 더불은 三雍(또는 三宮) 형식으로 운용되었다. 이들 셋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교화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당으로 또는 천지의 우주론적 상징성을 담지한 체계로 이해되는 것들이다. 이들 三雍은 후일 밤하늘의 별자리 이름으로 각기 매겨지게 되어, 천문 세계와 밀접한 의례 형식들임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 明堂은 후한의 五供儀禮(국가의 다섯가지 주요 의례) 중 南郊祭天과 北郊 祭地 다음으로 중요한 의례로 입전되었다.

魏晋시대에도 명당은 天地郊祀 다음으로 중시되었으며, 그 제사시기도 東漢과 같은 正月이나 2월을 사용하였다. 다만 配帝의 경우, 魏明帝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국조인 文帝를 배사하였으나, 西晋 武帝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南郊에서는 遠祖인 宣帝를 配祀하고 明堂에서는 자신의 嚴父에 해당하는 近考 文帝를 배사하는 郊堂 異配의 틀거리를 마련하였다. 西晋에서 明堂의 주신으로 南郊와 동일한 昊天上帝로 통일하려 하였으나 다시 五帝로 복원되는 등 五帝에 대한 강한 전통성을 벗어나지 못한 점도 명당의 의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음 남북조시기의 주된 특징은 명당 향사의 시기를 가을철로 옮기려는 시도에서 엿보인다. 北魏 孝文帝는 전례가 없던 9월 甲寅朔을 명당 시기로 삼았으며(492), 비슷한 시기인 南齊 武帝 때에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月令』의 鄭玄注에 의거하여 정월이 아닌 가을철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었다(484). 劉宋의 경우는 郊宗二祀

2) 김일권, 「중국 고대 明堂儀禮의 성립 과정과 천문우주론적 의미 고찰」(연세대 국학연구원, 304회 발표회문, 2000년 3월)에서 唐代 이전까지의 명당 제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측면을 개진하였다.

가 異名同實에 불과하다는 맥락에서 明堂을 南郊와 거의 동급으로 격상시켰는데, 南郊祀와 共日(같은 날)로 하되 교대로 間年一修(격년제)로 거행하는 시행령을 마련하였었다.

梁武帝 시기에는 명당의 전당을 五室로 할 것인지 九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쟁론을 벌인 끝에, 五帝와 配帝를 포함하는 六間으로 조영하였으며, 그 五帝에 대한 이해를 鄭玄說에 따른 太微 五精帝 맥락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郊堂 두 곳에서 거듭 제사되는 五帝에 대한 성격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명당의 五帝는 總義로, 郊祀에 마련된 五帝神은 別義로 규정하였었다. 그리고 그 명당에서 天文曆法과 관련된 聽朔 儀禮의 거행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漢代의 『月令』 정신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엿보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전개 과정을 거쳐 隋代에 이르러서는 매우 강화된 季秋 明堂 祭天으로 정립된다. 명당의 주신인 五方上帝 외에 五人帝와 五官神을 함께 從祀시키며, 太祖 武元皇帝를 配祀하여 西晋과 유사한 近考 配帝를 채택하였다. 그 시기는 北魏의 맥락인 季秋를 사용하여, 唐代의 季秋 明堂 大享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近考 嚴父를 配祀한다는 것은 明堂儀禮를 王者의 직접적인 조상에 대한 報本儀禮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며, 季秋 大享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은 가을철의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을 아울러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東漢이나 魏晋의 명당 시기가 정월 또는 2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季秋로의 시기 변화는 명당의례의 성격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전의 가을철 의례로 五郊迎氣 儀禮 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大祀級 祭天儀禮 차원이 아니라 계절에 따른 四時 儀禮에 불과하였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국가 사전 체계에서 주요한 제천 의례의 하나로 季秋 明堂 大享의 정립이 가지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로써 隋代에는 4가지의 주요 제천의례가 계절별로 하나씩 독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동짓달의 圓丘 祭天, 춘정월의 南郊 祭天, 여름철의 大雩 祭天, 가을철의 明堂 祭天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明堂에서는 五帝를 주신으로 제사하는 전통이 뚜렷하다. 五帝는 秦代에서 五行思想과 관련하여 雍時 郊祀 祭天의 주신으로 주목한 대상이었는데, 漢武帝시기에 明堂의 주신으로도 제사하였던 것이다. 東漢시대를 거치면서는 天子의 受命을 담당한다는 感生帝 성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감생제 관념은 漢代의 魏書思想에서 발전된 太微五帝에 연원을 둔다. 처음에 星象적 근거를 지니지 않았던

五帝神이 東漢 이후로는 천구상 太微垣의 五帝星座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뚜렷한 천문적 근거를 지니게 된다. 이에 각 왕조의 흥망이 太微五帝의 感應에 따라 전개된다는 天文宇宙論적인 天命思想이 팽배하게 된다. 남북조시대의 분위기는 이런 맥락에서 조망되는 바 크다.

東漢 蔡邕(132-192)의 『明堂論』에서 明堂을 天文曆法 사상에서 비롯된 聽朔 儀禮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짓는 대목도 그러한 천문우주론적 세계관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이에 明堂은 하늘의 뜻을 담아내는 지상의 聖所 곧 중요한 천문우주론적 건축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그 명당의 殿堂 형식을 九室로 할 것인가 五室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숱한 쟁론이 벌어진 것은 그런 배경에서이다. 五室說은 五行思想에 따라 매 계절의 천명인 時令에 감응하기를 요청한 형식이며, 九室說은 우주의 중심인 太一이 천하사방을 순회하면서 통어한다는 太一九宮 思想의 반영이다. 수당대에 大祀로 규정된 季秋 明堂 大享은 太微五帝를 주신으로 하는 제천 의례의 하나였다. 그런데 명당의 기능이 약화된 唐玄宗 시기에는 그 명당이 지니던 우주론적 상징성을 대체한 제도로 太一九宮에 대한 제사 체계인 九宮貴神 儀禮가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宋代에 가서는 다시 九宮太一과 十神太一의 제사로 확장 분화된다. 이렇게 太一 중심의 漢代 天文宇宙論은 한대 이후 당송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우주론적 의의를 짐작케 한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명당의례의 변천 과정에서 唐宋代에 전개된 흐름들을 보다 자세히 천착함으로써 明堂이 지니는 천문우주론적 함의와 그것의 복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명당의 의례사적인 그리고 정치사상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중국 역대 사전 연혁에서 명당 제도가 가장 체계화되는 것은 唐代의 일이다. 隋代에 季秋 大享으로 정립된 이래, 唐代는 이를 더욱 확충하여 다양한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명당을 중심으로 천착하되,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한다.

## Ⅱ. 唐高祖 시기 秋季 祭天으로서의 明堂大享 제도화

[1] 唐代의 郊祀制度는 圓丘, 方丘, 南郊, 北郊의 四元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와 더불어 孟夏 雩祀 의례와 季秋 明堂 의례가 새로이 주요 國家 祀典 제도로 부각되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 明堂 大享이 부상되기 이전에는 중국 역대 사전 체

계에서 가을철 의례만이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孟夏 雩祀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여름철 의례 역시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비록 夏至에 행하는 祭地 의례가 있긴 하였지만, 正月과 冬至에 집중되는 겨울철 祭天 의례에 비할 바 아니었다. 또한 봄철 의례에는 祈農에 바탕을 둔 耕耤 先農 의례가 이미 중요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先蠶 의례가 있었고, 社稷에 대한 제사 역시 봄철에 이루어지는 주요 제사들이었다.

이들에 비해 가을철 의례는 夕月 祭禮 정도가 고작이었다. 한대에 원구 혹은 남교의 제천 의례 속에서 기능을 하였던 朝日 夕月 의례가 曹魏 明帝에 의해 郊外의 祭場으로 옮겨지고 또 그 제사 시기에 천문학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비로소 春分日 東郊 朝日하고 秋分日 西郊 夕月하게 된 이래, 가을철 의례로 西郊 夕月이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지만 日月에 대한 의례인지라 하늘에 대한 제사만큼 비중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3] 그외 四時 五郊 迎氣 의례의 하나로 西郊에서 西方 白帝를 맞이하는 제사가 있긴 하였지만, 그 역시 대사급의 제천 의례가 아닌 계절의 순환에 따른 정기 의례에 불과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唐이 雩祀와 明堂을 여름철과 가을철의 祭天儀禮로 끌어올린 것은 의례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다 하겠다. 물론 이것은 隋代에 이미 이룩된 의례 체계를 계승한 것이다. 隋의 雩祀는 또한 北齊와 梁의 雩祀 제도를 이어, 시기는 孟夏, 祭場은 南郊, 神位는 五方上帝 등으로 구성하였었다.(표 1)

2 唐高祖의 武德令에 규정된 明堂, 雩祀는 다음과 같다.

孟夏의 달(=음 4월)에, 昊天上帝를 圓丘에서 雩祀하며 景帝를 배사한다. 五方上帝, 五人帝, 五官을 함께 從祀한다. 季秋(=음 9월)에, 明堂에서 五方上帝를 제사하고 元帝를 배사한다. 五人帝, 五官을 함께 從祀한다. (『舊唐書·禮儀志』,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p.821) 이로 보면, 우사와 명당의 신위 구성이 五方上帝, 五人帝, 五官神으로 동일하며, 다만 우사는 그 위에 昊天上帝를 제시한 것이다.

무덕령의 교사 제도 체제는 唐代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것인데, 겨울철의 원구 제천·북교 제지, 봄철의 남교 제천, 여름철의 우사 제천·방구 제지, 가을철의 명당 제천 등 여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로써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大祀級 祭天儀禮 네 가지가 사계절 모두에 편제되는 형식이 정립된 것이다.

---

3) 김일권, 「漢唐代 郊祀制度에서의 日月儀禮 硏究」(『대동문화연구』 35집, 1999년 12월)

<표 1> 雩壇 大雩의 연혁

| | 南齊 | 梁 | 北齊 | 隋 | 唐高祖 |
|---|---|---|---|---|---|
| 壇上 | 五精帝 | 五天帝 /五人帝 | 太微 五精帝 | 五方上帝 /五人帝 | 昊天上帝 |
| 從位 | 句芒 등 五神 配食 | 五官 /四海 名山 大川 | | 五官 | 五方上帝 /五人帝 /五官 |
| 配位 | 世祖 | 太祖 | | 太祖 武元皇帝 | 景帝 |
| 雩壇 | 南郊壇 동쪽 圓壇 | 南郊의 왼쪽 圓壇 (梁武帝 天監 9년 東郊로 이거) | 南郊의 동쪽 圓壇 | 國南 13리 啓夏門 外道 왼쪽 | |
| 시기 | 孟夏 | (孟夏) | 孟夏 | 孟夏 | 孟夏 |

<표 2> 唐高祖 武德令의 교사 제도

| | 祭天 (춘하추동) | | | | 祭地 | |
|---|---|---|---|---|---|---|
| | 冬至 圓丘 | 南郊 祈穀 | 圓丘 雩祀 | 明堂 大享 | 夏至 方丘 | 北郊 神州 |
| 시기 | 冬至日 | 孟春 辛日 | 孟夏 | 季秋 | 夏至日 | 孟冬 |
| 주신 | 昊天上帝 | 所感帝 | 昊天上帝 | 五方上帝 | 皇地祇 | 神州 |
| 配位 | 景帝 | 元帝 | 景帝 | 元帝 | 景帝 | 景帝 |
| 從祀者 | 五方上帝, 日月, 內官, 中官, 外官, 衆星 | | 五方上帝, 五人帝, 五官 | 五人帝, 五官 | 神州 五岳 四鎭 四瀆 四海 五方 山林 川澤 丘陵 墳衍 原隰 | |

## Ⅲ. 唐太宗 시기의 명당 건립 논쟁

[1] 唐은 태종 때부터 새로운 明堂 건립을 검토하게 되는데, 儒者들의 의견이 엇갈려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다음 고종대에도 역시 광범위한 논의를 벌이지만 팽팽한 대립 속에 결국 새로운 명당 조영은 실패하며, 측천 시기에 이르러서야 건립케

된다. 3대 동안 약 60년간에 걸친 이 명당 논의는 중국 역대 의례사 이해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漢代 이래 唐代가 의례 체계의 중흥을 이룬 측면이 적지 않은데, 唐代의 明堂 제도 또한 그러한 의의를 지니며, 후일 宋代 明堂 부활에 중요한 전거를 이룬다.

태종은 천하를 평정한 자부심으로 儒官들에게 명당 제도를 심의케 명한다. 이에 禮部尙書 盧寬, 國子助敎 劉伯莊 등 諸儒들이 "從崑崙道上層祭天" 및 "爲左右閣道, 登樓設祭" 고사에 따라 건립키로 하였다. 그러나 貞觀 5년(631), 太子中允 孔穎達은 그것이 옛 제도에 어긋난다면서 다음처럼 반론한다.

> "신이 六藝 群書 百家 諸史를 검토하니 모두 基上을 堂, 樓上을 觀이라 이름하는데, 重樓의 위를 堂이라 한 것은 듣지 못했다. 『孝經』에서 말한 '宗祀文王於明堂'에는 明樓, 明觀이라 하지 않았으니 같은 뜻이다. 또 明堂은 法天하여 聖王이 儉儉을 보이는 것이므로, 혹 翦蒿(자를 전, 쑥 호)로 기둥을 삼고, 띠로 지붕(葺茅)을 하였다. …
>
> 郊祀志(漢書)에 따르면, 漢武帝의 明堂 제도는 四面이 無壁이고, 위를 茅로 덮었다. 上座에 五帝를 제사하고, 下防에 后土를 제사하였다. 신은 上座가 바로 基上, 下防이 基下라고 생각된다. 이미 사벽이 없다고 하였는데, 劉伯莊은 어떻게 上層에 祭神하고 아래에 五室이 있음을 알았는가? 또 한무제는 方士의 설을 많이 채용하여 經正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師祖로 삼음이 불가하다.
>
> 또 盧寬 등이 의론하기를 '上層祭天, 下堂布政, 欲使人神位別, 事不相干.'이라 한다. 신이 옛날 敬重大事를 살펴보니 接神과 유사하다. 이러므로 祭祀 朝覲이 모두 廟堂에 있지, 어찌 樓上에서 祭祖하고 樓下에서 視朝하겠는가? 閣道로 누각을 오르는데, 길이 좁아, 수레를 타고(乘輦) 接神하는 것은 不敬스럽다." (『구당서·예의지』 pp.849-850)

侍中 魏徵도,

> "여러 古訓과 舊圖를 참고하면 上圓下方에 複廟重屋이다. … 청컨대, 五室 重屋, 上圓下方함이 대체적인 윤곽이다. 下室은 布政의 거소로 마련하고, 上堂은 祭天의 장소로 삼아, 人神이 不雜함이 예에 마땅하다." (『구당서·예의지』 pp.850-851)

라는 의견을 제출하지만,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10여년 후 다시 거

론된다.

2 貞觀 17년(643) 5월, 秘書監 顔師古는,

"… 그러나 『周書』에서 말한 明堂은 四面을 벼리로 하니 곧 應門, 雉門이 있다. 이에 근거한 一堂은 王者가 항상 거하는 곳이다. 그 靑陽, 總章, 玄堂, 太廟 및 左个, 右个는 四時 차서와 서로 같으니, 곧 路寢의 뜻이다. 또 『文王居明堂』편에 '弓韣(궁촉)을 두르고 高禖에 제사한다. 下九門은 역질을 막아 祈禳하고, 橋梁과 길을 닦아(置梁除道) 農夫를 이롭게 하며, 나라에 명하여 술(酒)로 三族을 합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月令』의 글과 합치된다. 『戴禮』에 '옛날 周公은 明堂의 자리에서 제후를 조회하고, 天子는 남향하여 서 있다. 明堂이란 제후의 존비를 밝히는 것이다.'라 하였고, 『周官』에서 또한 '周人 明堂은 度九尺之筵(깔개 연), 東西九筵, 堂一筵'이라 하였다. 이 제도를 보면 곧 大寢이다. 『尸子』 역시 말하기를 '皇帝曰合宮, 有虞氏曰總章, 殷曰陽館, 周曰明堂'이라 하였으니, 이 모두가 路寢의 표징이며, 별다른 곳이 아니다.

한무제 때 창건키로 하고 의론케 하니 의견이 분분하고 끝내 정해지지 않아, 드디어 汶水 위에 宗祀를 세우고, 그 遠近을 구애받지 않았으며 方面을 가리지도 않았다. 成帝 시대에, 城南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세워지지 않았다. 平帝 元始 4년, 영창키로 크게 의론하였으며, 孔牢 등이 明堂, 辟雍, 太學은 이름이 셋이나 기실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後漢) 中興 이후 蔡邕 역시 明堂 太廟를 一物二名으로 말하였다. 鄭玄은 '在國之陽, 3리의 밖'이라 하였고, 淳于登은 '3리 밖, 7리 이내, 丙巳之地'라 하였다. 潁容의 『釋例』 역시 이름이 8개이나 기실은 하나라 하였다. …" (『구당서 · 예의지』 pp.851-852)

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考據主義의 한계를 지적하며 태종의 결단을 촉구한다.

"明堂 제도에 대해 폐하가 이미 발표하였고, 상세히 의론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학자들이 오로지 견고하여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니 손익이 같지 않고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다. 신이 생각컨대 五帝이후 兩漢이전에 高下方圓이나 모두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오직 폐하의 聖情에 따라 창조하여 大唐明堂으로 삼아 만대에 전하면 충분하니, 어찌 戶牖의 多少를 논하고 階庭의 廣狹을 의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儒者의 互說 一端을 따르더라도 결단내리지 못한 지 오래이며, 헛되이 盛禮를 볼 뿐이다. 옛날 漢武帝는 封禪의례를 草創하고자 하나 博望 諸生들이 말하는 바가 같지 않아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御史大夫 倪寬(예관)

이 武帝에게 권하여 스스로 제도를 정하게 하니, 드디어 登封의 禮를 이루게 되었다. 신의 어리석은 정성으로, 역시 폐하가 살펴 節文으로 하고 겸손해 하지 말고 大典을 가리기를 바란다." (『구당서 · 예의지』 p.853)

그렇지만 여전히 조영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高宗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

## Ⅳ. 唐高宗 시기의 明堂 九室說과 五室說 논쟁

[1] 고종 永徽 2년(651) 7월 2일 칙명하여 명당 제도를 다시 심의케 하였다.

太常博士 柳宣은 정현을 따라 명당제도를 五室로 할 것을 주장하고, 內直丞 孔志約은 大戴禮 및 盧植, 蔡邕 등에 의거하여 九室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曹王友 趙慈皓, 秘書郎 薛文思 등은 각기 明堂圖를 제작하였다. 諸儒들이 분쟁하니 서로 不同하였다. 고종은 이에 九室의 의론이 옳다고 하고 그 형태 및 辟雍門 등을 상정케 명하였다.

다음해 6월, 有司가 九室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內樣 : 堂基 3층, 매 基階는 각기 12개. 上基 方 9雉, 8角, 높이 1척. 中基 方 300척, 높이 1筵. 下基 方 360척, 높이 1장2척. 上基는 黃琮을 상징하여 8角, 4면 12계단이다. 基의 높이는 周代의 제도 높이 9척에 준하고, 그 方은 공히 148척에 준한다.

又內樣 : 室 각기 方 3筵, 開 4闥, 8窗. 屋 圓楣 지름 291척. 季秋 大饗의 五帝가 각기 1室에 있음을 따른다. 兩漢 季秋 合饗이 太室에서 總祭하는 것을 따른다. 만약 四時 迎氣 제사라면 각기 그 방위의 室에서 하면 된다. 그 九室의 제도는 增損하는 명당 고사에 따라 三三相重으로 안치한다. 太室이 중앙에 있고 方 6장이다. 그 네 모퉁이(四隅)의 室을 일러 左右房이라 일컫고, 각 方 24장이다. 太室 四面에 해당하는 靑陽, 明堂, 總章, 玄堂 등 室은 각기 길이 6장으로 太室에 응한다. 闊 24척은 左右房에 응한다. 室間 並通巷은 각기 넓이 1장 8척이다. 그 九室 並巷은 堂上에 있고, 總方 144척으로 坤之策을 따른다. 屋圓楣(문미 미), 楯(난간 순), 檐(처마 첨)은 혹 未允인데, 鄭玄, 盧植 등의 설에 의거하여 前梁을 楣로 하고 그 지름은 216척으로 乾之策을 따른다. 圓柱旁出 九室 四隅는 각기 7척으로 天의 七紀를 따른다. …

又內樣 : 바깥의 기둥 36개는 매 기둥 당 10梁으로 한다. … 上圓下方, 飛檐應

規는 內樣에 따라 정한다. 그 屋蓋 형태는 「考工記」에 의거하여 四阿로 고친다. … 堂 四向 五色은 『周禮』 白盛便에 따른다. 그 사향은 각기 方色을 따른다. 四垣과 四門을 설치한다.

辟雍은 大戴禮 및 전대의 설에 따른다. 蔡邕이 말하기를 '水는 넓이 24장, 四周 밖에 있다.'고 하였다. 또 『예기·명당위』, 『음양록』에서 '水左旋은 象天이다.' … 殿垣은 『三輔黃圖』에 따라 殿垣四周方을 水내에 둔다. … 四門 八觀은 太廟門에 의거하여 각기 三門을 안치하며, 玄闈(문지방 곤)에 四角 三重 魏闕로 짓는다.」(『구당서·예의지』 pp.854-855)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되자, 이후 諸儒들은 경쟁적으로 異議를 제기하면서 쟁론한다. 尙書左僕射 于志寧 등은 九室로, 太常博士 唐晊(당진) 등은 五室을 주장하였다. 고종은 觀德殿에서 公卿이 청취하는 가운데 양설의 주장을 다시 개진케 하였지만, 난상토론 끝에 또다시 결정되지 못하였다.

[2] 15년 뒤, 고종은 乾封 2년(667) 2월 다시 명당 제도를 심의하여 양설을 절충하는데 노력하기를 하명하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면서 總章으로 改元하고, 萬年縣을 나누어 明堂縣을 설치하였다. 다음해(668, 總章 원년) 3월, 드디어 새로운 명당의 규격 광협안이 제정되었다. 그 각각의 규격 수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근거한 전거 고사를 함께 제시하면서, 明堂 건축에 담긴 우주론적 세계관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合宮聽朔하여 皇軒의 무성함을 천명하며, 靈府 通和하여 帝勳의 景化를 연다. 殷人 陽館 靑珪로 예를 갖추고, 姬氏 玄堂은 彤璋(붉을 동, 반쪽홀 장)으로 合獻한다. … 옆으로 8개 기둥을 벌리고, 둘레에 四門을 건축한다.

그 明堂院은 每面 360步로 중간에 두는 堂에 해당한다. 『周易』 乾之策 216과 坤之策 144를 총합하여 360을 이루니, 그러므로 方 360보이다. /三才의 근본에 따라 每面에 三門을 두되 一宇로 한다. /『尙書』에 따르면 1期에 四時가 있으므로 四面 각기 1개의 開門을 둔다. 每時 3개월이 있으므로 매 하나마다 三門을 연다. 1期 12개월이므로 둘레에 총 12門을 둘린다. /이미 一時가 3개월을 통할하므로 一舍에 三門을 설치한다. /또 『周易』에 三은 陽數, 二는 陰數인데 합하여 五가 되므로, 每門舍는 五間이다. /院 四隅 각기에 重樓를 설치하고, 그 四墉(담 용)은 각기 본래의 方色을 따른다. /『淮南子』에 따르면, 地有四維이므로 四樓를 둔다. /『月令』에 따르면 水火金木土 오방이 각기 다른 색이므로 그 담장은 각기 방색을

따른다.

基 8面은 8방을 상징한다. 『周禮』에 따르면 黃琮은 禮地이다. 鄭玄注에서 '琮이란 8방의 玉으로 地形을 본 뜬 것'이라 하였다. 또 『漢書』에 따르면 武帝는 八觚壇으로 祀地하였다. /『漢書』에 따르면 陽은 六律, 陰은 六呂이므로 基의 높이를 1장 2척으로 한다. /또 『周易』에 三은 양수, 八은 음수이다. 三八相乘하면 240척이 된다. 여기에 『漢書』에 따르면 九會의 數에 40이 있어, 합하면 280이 되니, 基의 지름 280척이 된다. 그러므로 天地의 조화를 交通하고, 陰陽의 數를 錯綜(섞일 착, 모을 종)한다. /基 매면에 3계단, 주위에 12계단, 매 계단 25級이다. 『漢書』에 따르면 하늘에 三階가 있으므로 매면에 3계단이있으며, 땅에 12辰이 있으므로 둘레에 12계단이 있다. 이는 星에 부응하고 땅의 數를 본받아 계단을 설치한 것이다. /또 『文子』를 따르면 凡에서 聖에 이르는 것에 25等이 있으므로 매 계단을 25級으로 한 것인데, 이는 皇極의 高居를 상징한 것이다.

基上에 1堂을 삼으며 그 宇는 上圓이다. 『道德經』에 따르면 '하늘이 一을 얻어 淸하고, 땅은 一을 얻어 寧하고, 侯王은 一을 얻어 천하가 貞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 하였다. 또 『漢書』에 '太極元氣, 函三爲一'이라 하고, 또 '天子는 四海를 爲家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一堂을 설치하여, 元氣를 상징하고 아울러 四海 一家의 뜻을 취한다.」(『구당서·예의지』 pp.856-858)

계속해서 다양한 수치와 그 세계관, 전거고사 등이 서술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蒼璧은 禮天(周禮), 璧圓은 象天(鄭玄注)에 따라 지붕을 上圓한다. /地에 九州가 있으므로(尙書) 九間을 세운다. /1년 12달이므로(禮記) 12門을 둔다. /하늘에 24氣가 있으므로(史記) 堂 주변에 24개의 창문을 둔다. /八柱는 承天하는 것이므로(河圖) 堂心에 8개 기둥을 두며, 大衍의 數가 55이므로(周易) 그 기둥 길이를 55척으로 한다. /하늘에 四輔星이 있으므로(漢書), 堂心 밖에 四柱를 둔다. 곧 堂 안의 8개 기둥은 하늘을 잇는 것이고, 당 밖의 4개 기둥은 4개의 星象을 따른 것으로 上交下泰하여 拱極한다. /하늘에 28宿가 있기 때문에(史記) 8柱 4輔 외에 다시 제2重의 28개 기둥을 세운다. /제3重 32개 기둥은 八節, 八政, 八風, 八度 등 列宿를 관찰하여 때를 맞이하는 것을 상징한다.(漢書) /外面 주위의 36개 기둥은 1년 36旬을 따른 것이다.(漢書) /전체 기둥 갯수가 120개인데, 이는 天子가 三公, 九卿, 27大夫, 81元士를 설치하는 것(禮記)에 따른 것이다. /大小節級拱이 6345개인데, 會月의 수가 6345개월이기 때문이다.(漢書) 이는 멀리 三統의 글을 채용한 것이다. /重幹이

489枚인데, 이는 章月 235개월과 閏月 주기 254개월을 합한 489개월을 따른 것이다.(漢書) /下柳 72枚는 72候를 따른 것이다.(易緯) /上柳 84枚는 九會의 數 78(漢書)과 六合의 수(莊子 六合에 대한 司馬彪의 주석, 天地四方爲六合)를 합친 것이다. /方衡 15重은 五行 生數 15를 따른 것이다.(尙書) /南北 大梁(대들보) 2根은 太極生兩儀(周易)를 따른 것이다. /太平시절에 5日 1風인데 1년 72風이어서(淮南子) 72개의 大梠를 둔다. /위를 淸陽玉葉으로 덮은 것은 淮南子에 淸陽은 天으로 청양의 색으로 합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구당서 · 예의지』 pp.858-862)

이상의 명당 제도에 동원된 전적을 정리하면, 『周易』 『尙書』 『淮南子』 『月令』 『周禮』 『漢書』 『文子』 『道德經』 『鄭玄注』 『尙書』 『禮記』 『史記』 『河圖』 『易緯』 『莊子』의 司馬彪 주석 등 매우 다양하며, 각종 天文 관련 象數와 老莊子 道家 및 緯書 사상을 끌어들인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下命 후에도 뭇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高宗 시기에도 창립되지 못하고, 측천 시기로 넘어간다. 이같이 唐初에 명당 조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는데, 태종, 고종 시기에 수차례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건축은 측천무후에 이르러 보게 된다.

## Ⅴ. 則天武后 시기의 명당 건립과 天文 紀元儀禮적 성격

### 1. 則天의 明堂 落成과 新年 祭天儀禮로의 격상

[1] 則天은 高宗의 遺意를 받들어 北門學士들과 그 제도를 심의하였으며, 群言의 말은 듣지 않았다. 垂拱 3년(687) 봄, 東都의 乾元殿을 헐고, 그 땅에다 창건키로 하였다. 垂拱 4년(688) 정월 5일, 드디어 明堂을 낙성하였다. 그 이름을 萬象神宮이라 호칭하고, 河南縣을 合宮縣으로 개칭하였다.

높이 294척, 동서남북 각기 300척이다. 3층 건물인데, 하층은 四時를 상징하여 각기 그 方色을 따르고, 중층은 12辰을 따라 圓蓋하고, 蓋上盤에 九龍을 받들었다. 상층은 24氣를 따르며 역시 圓蓋이다. 亭 중에 巨木 十圍가 있고, 上下 貫通하되 栭(두공 이), 櫨(두공 로), 樗(기둥 탱), 媲(처마 비)를 두며 서로 鐵索으로 엮었다. 지붕은 鸞鸞(봉황 악, 자색봉황 작)의 날아갈 듯한 황금 장식으로 하였으며, 나무를 깎아 기와를 만들고 칠을 하였다. 明堂 아래에 鐵渠를 만들어 辟雍을 상징하였다. (『구당서 · 예의지』 p.862)

이러한 명당 조영에 얽힌 배경에 대해 則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黃軒은 曆을 다스려 合宮에서 萬方을 朝會한다. 丹陵은 握符하여 衢室(네거리 구)에서 四岳을 咨問한다. 有虞가 祥瑞를 모으니 總章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였으며, 大禹가 錫珪하니 重屋의 이름을 修建하였다. 殷人이 受命하여 辨方에 陽館을 설치하였고, 周室은 凝圖(엉길 응)하여 經野에 明堂을 건립하였다. 三極을 범위로 하고, 五神을 幽贊하고, 尊祖의 회포를 전개하고, 宗祀의 典을 편다.

이에 漢魏를 따르고 周隋를 돌이켜 經治의 제도를 일으켰으나 修廣의 규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짐이 용매하나, 高宗이 왕년에 이미 陽館에 뜻을 두어, 京輔의 縣을 明堂縣으로 준비하였으며 改元하여 總章이라 하였다. 乾封연간에도 뜻을 내었으나 조영하지 못하고, 지금에야 그 뜻을 받들게 되었다.

대저 明堂이란 天子 宗祀의 堂으로 諸侯를 朝會하는 자리이다. 乾坤의 오묘한 策을 열고, 氣象의 運行을 본받으므로, 災害가 생기지 않고 禍亂이 일지 않는다. 鴻儒 禮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나, 모두 明堂이 3리 밖, 7리 이내, 國陽의 밝은 곳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 이에 짐이 궁실에서 요원한 丙巳之地로 삼아 每月 거하면서 時饗祭한다. … 天地를 공경스레 받들고 神明의 德을 밝히며 祖宗을 尊祀하여 삼가 뜻을 다한다. … 지금 上堂은 嚴配의 처소로, 下堂은 布政의 居所로 삼는다. 매년 正月 1일, 明堂에서 三聖을 宗祀하고 配上帝한다. 마땅히 禮官, 博士, 學士, 內外明禮者들은 의례를 상정하여 典要를 이루라." (『구당서 · 예의지』 pp.863-864)

다음해 則天 永昌 원년(689) 正月 元日, 새로이 건립된 明堂에서 처음으로 親享하며, 대사면하고 改元하였다. 그 달 4일, 明堂에 臨御하여 布政하고 백관들에게 九條를 반포하였다. 다음날 또 명당에 임어하여 군신들을 연회하였다. 明堂이 낙성된 이후, 東都 婦人 및 諸州 父老를 入觀시켜, 酒食을 내렸다. 吐蕃 및 諸夷들이 명당 낙성에 역시 각기 遣使를 보내 축하하였다 한다.

載初 원년(690) 겨울 正月 庚辰朔, 日南至에 다시 明堂 親享하고 대사면하고 改元하면서 周正(冬至月 歲首)을 사용하였다. 다음날 群后에 布政하였다. 그 해 2월, 측천은 또 명당에 임어하여 三敎를 크게 열었다. 內史 邢文偉(형문위)가 『孝經』을 강의하는데, 侍臣 및 僧, 道士 등에 명하여 차례로 논의하게 하였다. 날이 기울자 파하였다.

天授 2년(691) 正月 乙酉日, 日南至에 明堂 親享하는데, 天地 合祭하며 周文王 및 武氏 先考, 先妣를 배사하고, 百神을 從祀하고, 나란히 壇位 次第에 布席하여 제

사하였다.

이에 春官郎中 韋叔夏가 奏言하기를,

"삼가 明堂大享을 살펴보면 오직 五帝만 제사한다. 그래서 『月令』에 '이 달은 大享帝한다'하니, 곧 「曲禮」의 '大享은 卜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며, 鄭玄이 注云하여 '明堂에서 五帝를 두루하는 제사에는 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祭法」에 '祖文王하고 宗文王한다'고 하며, 鄭玄의 注云에 '명당에서 五帝·五神의 제사를 祖·宗이라 한다. 그러므로 『孝經』에서 從祀文王於明堂하고 以配上帝라 한 것'이라 하였다. 이 문장들에 의거하면 明堂의 올바른 예는 오직 五帝만 제사하고, 祖宗 및 五帝·五神 등을 배사하며 그 외의 신을 合預하지 않는 것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폐하의 追遠의 정이 깊어 明堂 享祀에 昊天上帝, 皇地祇를 더하고, 先帝, 先后를 배향하였는데, 이는 前王이 빠뜨린 전례를 보충한 것이며 嚴配의 경건한 정성을 넓힌 것이다. 神都 郊壇이 미건축되었을 때 明堂의 아래에 衆神들을 널리 제사하였다. 삼가 禮經을 살피건대, 그 內官, 中官, 五岳, 四瀆 諸神은 二至에 함께 從祀하는 것이다. 明堂에 總奠(제사지낼 전)하는 일은 不經하다. 그런즉 宗祀 配天의 親에 小神과 함께 섞어 薦神하는 것은 嚴敬의 이치에 미흡하다. 바라건대, 매해 元日 오직 天地大神을 제사하고, 帝后로 배사하기를 주청한다. 그 五岳 이하는 冬·夏의 二至에 예하면서 方丘, 圜丘에 종사토록하여 모독함이 번잡하지 않기를 바란다." (『구당서·예의지』 pp.864-865)

라 하여, 명당 대향의 從神 규정을 축소토록 건의하였는데 측천은 이를 따른다.

이상 측천시대에 거행된 明堂 의례는 唐初의 季秋 大享 성격이 아니라 新年儀禮로서의 正月 祭天 성격과 曆法周天의 紀元儀禮로서의 冬至 祭天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690년 載初 開元하면서 周正을 사용하였다 하였으므로, 夏正의 寅月에서 두 달 앞선 子月(11월)이 곧 新年 歲首가 된 것이다. 그래서 春正月이 아니라 冬正月이라 한 것이며, 또한 그 때는 曆法上의 紀元인 冬至月이므로 曆法상의 신년이기도 한 것이다. 그같은 신년의례에 걸맞게 明堂의 주신도 五帝가 아닌 昊天上帝와 皇地祇에 대한 天地合祭 형식을 취한 것이라 파악된다.

따라서 측천에서의 明堂은 국가 사전의 第一位로 격상된 것이며, 기존에 冬至 圓丘 祭天이나 正月 南郊 祭天이 지니던 기능을 통폐합하여 총합된 상징 의례로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그 명당의 조영물 규격이 뭇 天文宇宙論적 象數들에서 취합한 것이므로, 明堂은 天文과 人文의 조화 의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우주론적 聖所이

자 天子 布政의 전당이며 政治 敎化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의 연장선에서 天文의 運行 질서와 曆數 원리에 응하려는 聽朔儀禮가 다시 明堂을 둘러싸고 거행된다.

[2] 또한 측천은 明堂 뒷편에 天堂을 조영하고 높이 100여척의 佛像을 안치하였다. 처음 건축할 때 태풍이 불어 넘어져, 급작스레 重營하는 바람에 功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證聖 원년(695) 正月 丙申夜에, 佛堂에 화재가 나 明堂을 延燒하였으며, 새벽에 이르러 二堂이 모두 소진되었다. 이때 구름이 없는데 西北에서 번개가 쳤다고 한다. 宰相 姚璹(요숙)은 이 사건에 대해, "이는 人火이며, 天災가 아니다. … 지금의 明堂은 布政하는 곳이지 宗祀가 아니다."라 한다. 左拾遺 劉承慶 또한 상소하여, 여러 재앙의 표징이 있었으나 長壽하였다는 역대 고사를 들고, 또 『左傳』에 '人火를 火, 天火를 災'라 한다면서 天災가 아님을 강조한다.

측천은 舊規制에 따라 다시 明堂 重建을 명하고, 모두 높이 294척, 동서남북 넓이 300척으로 하였다. 위에 寶鳳을 시설하여 火珠를 대신하였으며, 명당 아래에 鐵渠를 둘러 辟雍을 상징하였다. 天冊萬世 2년(696) 3월, 明堂 重建을 낙성하고 通天宮이라 이름하였다. 4월 朔日에 親享禮를 하고 대사면하고 萬世通天으로 改元하였다. 다음날 측천은 通天宮의 端扆殿(병풍 의)에 임어하여 有司에게 時令을 봉독케 하고, 群后에 布政하였다.(『구당서 · 예의지』 pp.865-867)

[3] 그해 九州鼎을 鑄銅하고, 명당의 庭에 안치하되 각기 방위에 의거하여 진열하였다. ①神都鼎은 높이 1장 8척으로 受 1800石이다. ②冀州鼎을 武興이라 이름하고, ③雍州鼎은 名長安, ④兗州鼎은 名觀, ⑤靑州鼎은 名少陽, ⑥徐州鼎은 名東原, ⑦揚州鼎은 名江都, ⑧荊州鼎은 名江陵, ⑨梁州鼎은 名成都라 이름하였다. 이 8州鼎은 높이 1장 4척으로 各受 1200石이다. 司農卿 宗晉卿을 九鼎使로 삼고 구리 56만 712근을 사용하였다. 鼎 위에 本州 山川 産物의 像을 그렸다. 완성된 후 玄武門으로부터 끌어들이는데, 宰相, 諸王에 명하여 南北 衙宿衛兵 10여만人과 아울러 큰 소, 흰 코끼리로 함께 끌게 하였다. 측천은 스스로 曳鼎歌(끌 예)를 짓고 창하게 하였다. 그 때 또한 大儀鐘을 주조케 하였으나 끝내 완성되지는 않았다. 九鼎에 처음엔 黃金 1000냥으로 도금하려 하였으나, 요숙이 "鼎은 神器로 질박함을 숭상한다" 하여 그만두었다. 그해 9월, 通天宮에서 大享하고 神功으로 개원하였다.(『구당서 · 예의지』 pp.867-868)

이같은 측천 시대의 九鼎 주조와 明堂 제도의 연계성은 漢武帝 시기의 寶鼎 고사에 보이는 黃老方士적 분위기와 상통하는 느낌이 있다. 더구나 측천에 이르러 唐代 封禪儀가 활발해지는 것도 그러하다. 물론 측천의 九州鼎 고사는 그녀가 자신의 근원으로 삼은 周代의 九鼎에 깃든 이상을 재현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기도 한다.

후일 北宋 徽宗 시기는 다시 한번 그러한 黃老方士적 분위기를 드높이는데, 九宮太一說에 따른 九鼎을 주조하여 帝鼎宮에 세운 大角鼎星祠에 안치하며, 徽宗 政和 시기 편정된 『五禮新儀』에서는 九鼎에 대한 제사를 中祀로 격상시킨다.(『송사·예지』 p.2426, 2544) 또한 東郊의 九宮神壇에서 太一九宮貴神을 제사하는 의례 제도가 眞宗 咸平 시기에 大祀로 편제되는데,(『송사·예지』 p.2506) 이 역시 唐代에 연원을 둔 제도이다. 唐玄宗 天寶 3년(744) 朝日壇 동쪽에 3층 九宮貴神壇을 설치하여 九宮神을 제사하는데, 거기에 깔린 사상은 漢代의 天文 우주론에 바탕한 太一 세계관으로 파악된다.(『구당서·예의지』 p.929) 이에 관해서는 다시 후술된다.

## 2. 明堂의 天文曆法的 聽朔儀禮 거행

[4] 한편, 則天 聖曆 원년(698) 정월 親享하고 朝賀하면서, 매월 1일 명당에서 告朔하는 예를 거행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司農博士 辟閭仁謂(벽려인서)는 每月 告朔하는 것은 제후의 예이며, 천자의 告朔은 正月 元日에만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經史에 천자가 매월 告朔하는 일은 없다. 다만 『禮記·玉藻』에 '천자가 남문 밖에서 聽朔한다.'하고, 『周禮·天官太宰』에 '正月 길일에 邦國都鄙에서 포정한다.' 하며, 干寶 注云에 '周正 建子之月 告朔日'이라 하였다. 지금 매해 歲首 元日에 通天宮에서 조회를 받고 時令을 봉독하고 布政하며, 京官 9품이상, 諸州 朝集使 등이 모두 뜰에 모여 이 聽朔의 예를 필하니, 周禮, 玉藻의 글에 부합한다. … 『月令』에서 '그 帝는 太昊이며, 그 神은 句芒이다'란 것은 時令을 宣布하는 것을 이른다. … 每月 有令을 일러 月令이라 하며, 천자가 每月 朔日에 祖配帝하고 告朔하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每月 告朔이란 諸侯의 禮이다. 그러므로 『춘추좌씨전』에서 '公이 視朔한 뒤 드디어 觀臺에 오른다' 하고 또 『論語』의 鄭注에 '人君은 每月 廟에서 告朔하는데 이 제사를 일러 朝享이라 한다. 魯 文公 이래 비로소 朔禮가 보이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제후의 예가 분명하다. 지금 왕이 시행하려는 것은 듣지 못한 것이다. 또한 禮論, 三禮義宗, 江都集禮, 貞觀禮,

顯慶禮 및 祠令 등을 검토해도 없는 일이다. 청컨대 그만두기를 바란다." (『구당서·예의지』 pp.868-869)

그러나 鳳閣侍郎 王方慶은 그 견해에 반박하여 每月 告朔할 것을 주장하며, 더불어 明堂에 얽힌 명칭, 정의, 성격, 연혁 등 명당의 여러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괄적으로 논술한다. 이 논의는 우리에게 明堂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번다하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明堂이란 天子 布政의 宮이다. 天氣에 순응하여 만물을 통어하고, 兩儀를 본받아 四海에 덕을 입히는 것이다. 夏曰世室, 殷曰重屋, 周曰明堂이니 이는 三代의 이름이다. 明堂이란 天子 太廟로 上帝에 배사하면서 그 조상을 宗祀하는 곳으로, 東曰靑陽, 南曰明堂, 西曰總章, 北曰玄堂, 中曰太室이라 한다. 비록 다섯 이름이 있으나 明堂을 위주로 삼는다. 漢代의 달통한 儒者들은 모두 明堂, 太廟를 하나로 보았다. 漢의 左中郎將 蔡邕 역시 그러하다. 그 宗祀를 취하여 淸廟라 부르고, 그 正室을 취하여 太室이라 부르고, 그 向陽을 취하여 明堂이라 부르고, 그 建學을 취하여 太學이라 부르고, 그 圜水를 취하여 辟雍이라 부른다. 모두 異名이나 同事로 본 것이 古制이다.

天子는 孟春 正月 上辛日, 南郊에서 12月의 政令을 總受하고, 돌아와 祖廟에 藏하고, 매월 그 一政을 취하여 明堂에서 반포한다. 諸侯는 孟春의 달에 天子를 조회하여 12월의 政을 받아 祖廟에 藏하고, 매달 그 一政을 취하여 시행한다. 대개 음양을 조화하고 天道에 순응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하면 禍亂이 일지 않고 재해가 발생치 않는다. 그러므로 孔子도 아름다이 칭하여 '明王이 孝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라 한 것이다. 人君이 告朔하는 禮를 일러 告朔이라 하고, 이달의 政令을 聽視하는 것을 일러 視朔 혹은 聽朔이라 한다. 세가지 이름이 있으나 기실은 하나이다.

지금 禮官들이 '經史에 천자가 매월 고삭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春秋』 『곡량전』 『좌씨전』 등에 따르면 天子는 閏月에도 또한 告朔한다. 그러니 어찌 다른 달에 폐할 것인가? 또 禮官이 앞서 말한 『玉藻』 『周禮·天官太宰』, 干寶注 등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玉藻』에서 '玄冕하여 東門 밖에서 朝日하고, 南門 밖에서 聽朔한다.' 하였고, 鄭注에서 '朝日은 春分의 때이다. 동문, 남문은 모두 國門이다. 明堂은 國之陽에 있어 每月 그 시기의 堂을 취하여 聽朔한다. 聽朔은 반드시 特牲으로 時帝 및 그 神에 告祀하고 文王 武王을 배사한다.'라 하였다. 그리고 지금 歲首 元日 通天宮에서 조회를 받아 時令을 봉독하고 布政하는 것은, 古禮이래 孟春 上辛日 12월의 政令을 받아 祖廟에 보관하였다가 매달 一政을 취하

여 명당에서 반포하는 예를 일컬은 것으로, 그 뜻이 밝은데 오히려 행해지지 않는다. 곧 예관이 말한 것은 그 일을 빠뜨린 것이다.

『禮記·月令』에서, 천자가 매월 청양, 명당, 총장, 현당에 거하여 每月 告朔한다 하였다. 先儒들의 舊說에 따르면, 천자는 1년에 18번 명당에 들어가야 한다. 大享 不問卜이 1入이며, 每月 告朔이 12入이며, 四時 迎氣이니 4入이며, 巡狩하는 해에 1入이니 모두 18번이다. 지금 예관이 오직 歲首에 1入만 한다는 것은 先儒와 다른 의견이라 동의할 수 없다.

鄭玄은 '무릇 聽朔은 그 帝에 告한다'라 하였다. 신의 생각으로, 告朔의 날에 五方上帝 중의 一帝에 대한 것이다. 봄에는 靈威仰, 여름은 赤熛怒, 가을은 白招拒, 겨울은 叶光紀, 季月엔 含樞紐이며, 모두 始祖를 배사한다. 人帝와 神은 祀典에 나열되며 또한 그 달에 祭享한다.

秦이 滅學하여 明堂, 辟雍 등의 제도가 누락되었다. 漢武帝가 封禪하면서 처음으로 太山에 明堂을 造營하였으나, 京師에 세우지 않았으므로 告朔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漢平帝 元始중에 王莽이 輔政하면서 거의 復古하였는데, 이에 明堂, 辟雍 등을 건립하였다. 皇帝는 明堂에서 祫祭하고, 諸侯王, 列侯, 宗室子弟 900여명이 제사를 도와 마쳤다. 明帝 永平 2년(59), 明堂에서 五帝를 郊祀하면서 광무제를 배사하고, 南郊처럼 奏樂하였다. 董卓이 西로 이동하면서 典籍이 인멸되어 告朔의 예가 이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晉末에 이르러 잔멸되고 元帝가 渡江하고서는 일이 낭패되어, 예악제도가 남으로 옮겨가면서 彛典이 잔결되어 옛 章籍을 복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 일을 심의하였으나, 이미 明堂의 일을 빠져 告朔을 논하지 못하였다. 宋朝 何承天이 그 문장을 찬집하고 禮論으로 편찬하였으나 그 일이 빠짐은 이와 같다. 梁代 崔靈恩이 『三禮義宗』을 찬하였지만 前儒를 가릴 뿐이었다. 隋 大業 중에, 隋煬帝가 學士에 명하여 『江都集禮』를 찬하게 하고, 다만 『禮論』을 발췌하게 하였으나, 다시 다른 문장이 없었다. 貞觀, 顯慶禮 및 祠令이 告朔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역대에 전하지 못하고 그 문장이 누락되어 근거할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禮官들이 인증한 것은 심히 의심되는 바라 하겠다.

폐하가 明堂을 비로소 건축하여 드디어 古典을 준하여 告朔의 禮를 마련하였으나, 舊章의 빠진 바와 같으니 응당 보충되어야 한다. 만약 每月 明堂에서 聽政한다면 일이 또한 번거로울 수 있지만, 孟月의 視朔만은 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당서·예의지』 pp.869-873)

이에 이를 의론케 하였는데, 당시 大儒 成均博士 吳揚吾, 太學博士 郭山輝(곽산운) 등은 王方慶의 의론처럼 四時 孟月 및 季夏에 明堂에서 告朔하는 예를 修復함이 좋다고 하였다. 그 帝 및 神은 방경이 말한대로 鄭玄義를 써서 明堂上에서 五時

帝에 告하면, 嚴配의 도리가 神明에 통하여 四海에 덕이 빛날 것이라 하였다.(『구당서·예의지』 p.873) 이를 따르게 되니, 唐代 明堂의 聽朔 시기가 四孟月 및 季夏의 五時로 행해지게 된다. 그러나 長安 4년(704, 측천 마지막해) 元日에는 明堂 受朝만 하고, 時令 봉독을 그만두게 하였다.

## Ⅵ. 唐玄宗 시기 明堂 圓丘祀와 九宮貴神儀禮 대두

中宗의 혁명 뒤, 神龍 원년(705) 9월의 明堂 親享에는 天地 合祭하고 高宗을 배사하였는데, 다음해(706) 季秋 大享부터는 다시 圜丘 행사로 복귀하였으며, 睿宗 시기까지 이른다.

[1] 그러다 당현종 시기에는 또다시 명당 의례에 대한 쟁론이 전개된다.

開元 5년(717) 정월, 東都로 행차하여 大享의 예를 행하려 하는데, 太常少卿 王仁忠, 博士 馮宗, 陳貞節 등은 측천 시기 건립된 明堂이 典制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 명당의 위치가 丙巳之地인 것을 두고, 漢武帝가 長安 城南에 세우려 했다가 竇太后로 인해 그만둔 고사나 成帝, 平帝 역시 궁성 남쪽에 세우려 하였고, 광무제 中元 원년에 國城의 남쪽에 세웠던 일을 들어 그 뜻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또 布政의 장소를 太微上帝의 宮이라 하여 人神이 잡란케 된 점을 비판한다. 또 乾元殿(명당을 지은 자리에 있었던 건물)의 이름으로 복원할 것을 주장한다. 刑部尙書 王志愔 등도 동의하므로, 이로부터 東都에서 元日 冬至로 항상하고, 乾元殿에서 朝賀를 받았다. 季秋 大享 제사는 舊儀에 따라 圓丘에서 행사하기로 하였다.(『구당서·예의지』 pp.873-876)

開元 10년(722) 乾元殿이란 제호를 다시 明堂으로 복원하였으나, 享祀하지는 않았다. 開元 25년(737) 西京으로 가면서, 大匠 康공(砮+言)素를 시켜 東都를 헐기를 명하였다. 이에 공소는 乾元殿 舊制에 의거하여, 上層을 깎아 舊制 95척으로 낮추며, 또 柱心木을 제거하여 平座上에 8角樓로 하고, 누상에 8龍으로 하고, 또 周圍를 5척으로 하여 작게 하기를 주청한다.

이상과 같이 측천 이후 중종에서 현종에 이르서는 새로운 명당 건축물이 제 기능을 잃게 되며, 대신에 圓丘에서 季秋 大享하는 것으로 바뀐다. 곧 新年 의례에서 季秋 의례로 환원되면서, 明堂의 정치의례적인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 그런데, 당현종 시기에는 九宮神에 대한 의례 제도가 제기되어, 측천 당시 明堂에 안치되던 九鼎 의례 맥락과 유사한 제도가 부활된다. 이는 측천시기 팽배하였던 天文宇宙論적 신비주의에 대한 유습이라 여겨진다.

현종 天寶 3년(744) 術士 蘇嘉慶이 九宮貴神 제사를 건의하는데,

> "서울 동쪽에서 朝日壇 동쪽에 九宮貴神壇을 설치하며, 3층으로 한다. 각층에 3척, 4階이다. 그 위에 九壇을 두며, 壇은 1척 5촌이다. 동남을 초요, 정동을 헌원, 동북을 태음, 정남을 천일, 중앙을 천부, 정북을 태일, 서남을 섭제, 정서를 함지, 서북을 청룡이라 한다. 5를 가운데로 하고 9를 이고 1을 밟으며, 좌3 우7이며, 2와 4를 위, 6과 8을 아래로 하여, 遁甲에 符應한다.
>
> 四孟月 祭祀에 九宮貴神을 높이는데, 昊天上帝 다음으로 예하며, 太淸宮 太廟 위에서 한다. 牲牢에 璧幣를 사용하며, 天地神祇에 類한다." (『구당서 · 예의지』 p.929)

고 하였으며, 현종은 이를 따라 親祀한다. 여기에 나온 象數는 洛書 九宮數를 표현한 것이다.(표 3) 그리고 처음에 九宮神位는 四時로 改位하였는데, 肅宗 乾元 3년(760) 정월 친사 이후로는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례가 明堂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측천 당시 행해지던 명당에서의 寶鼎 신비주의를 되살린 흐름으로 여겨져 주목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현종 시기의 의례들은 여러 측면에서 한대의 천문 우주론적 세계관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표 3> 당현종 시기의 九宮貴神 배치도

| | | |
|---|---|---|
| 동남 4 招搖 | 정남 9 天一 | 서남 2 攝提 |
| 정동 3 軒轅 | 중앙 5 天符 | 정서 7 咸池 |
| 동북 8 太陰 | 정북 1 太一 | 서북 6 靑龍 |

九宮神 제사에 앞서, 개원 11년(723) 2월 漢武帝때 건립되었던 汾陰 后土祠에 대한 제사를 부활하여 方丘儀에 준하는 親祀를 행하였으며, 이때 寶鼎 3매를 획득하게 되어 汾陰을 寶鼎으로 개명한 일이 있다.(『구당서 · 예의지』 p.928) 또한 개원 24년(736) 7월 을사일, 처음으로 壽星壇을 설치하고, 老人星 및 角亢 등 七宿를 제사하였다 한다.(『구당서 · 예의지』 p.929)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당현종이 한무제 시기의 천문우주론적 세계관을 중흥하여 天文에 감응하려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측천이 새로운 명당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천인감응적 의례 체제를 구축하였다면, 현종은 이 九宮貴神 제사를 통하여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구궁 제사가 昊天上帝에 버금가는 大祀로 중시된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大祀級 제사로 시행된 지 80여년이 지난 文宗 大和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中祀로 하향되었으므로, 그 동안 얼마나 이 제사에 치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文宗 大和 2년(828) 8월, 監察御史 舒元輿가 그 문제를 지적하여 말하기를,

> "7월 18일 九宮貴神 제사에 신이 차례로 제사를 살피면서 직책상 예물을 검사하게 되었다. 祝版 9片을 살피다가, 폐하의 親署御名 및 九宮神에 稱臣하는 것을 읽게 되었다. 天子의 尊貴로 天地·宗廟 제사 이외에 稱臣하는 경우는 없다. 王者는 父天母地, 兄日弟月하며, 九宮은 눈으로 삼아 마땅히 방위로 나누어 그 位를 지킨다.
>
> 신이 그 명호를 보건대, 太一, 天一, 招搖, 軒轅, 咸池, 靑龍, 太陰, 天符, 攝提이다. 이 九神은 천지에 대해 子男과 같으며, 日月에 대해 侯伯과 같다. 폐하가 天子(하늘의 자식)인데 어찌 도리어 天의 子男에 칭신하는가? 당연히 稱皇帝 하고 某官을 보내 제사함이 마땅하다." (『구당서·예의지』 pp.929-930)

라고 한다. 이를 검토한 뒤, 中祀로 강등시키고 祝版에 稱皇帝하며 서명하지 않게 되었다 한다.

그렇지만, 武宗 會昌 2년 정월 4일, 中書門下의 奏言에서,

> "天寶 3년 10월 6일 조칙에서 '九宮貴神은 실로 水旱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미 兩朝(현종, 숙종)의 친사가 있었는데, 祈晴하면 표징이 있었다. 하물며 大和 이래 水旱 愆候(허물 건)로 인해 폐하가 늘 稼穡을 근심하고 생각이 많다. … 엎드려 大和 3년 禮官이 上狀한 글을 보건대, '水旱兵荒을 맡으므로 品秩이 列宿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五星은 모두 從祀하는데, 日月은 오히려 中祀에 있다.'고 하였다. 그 뜻을 상고할 때, 星辰으로 天官에 비유함은 합당치 않다. … 後魏 王均志에 '北辰 제2성은 盛하여 常明한 者로 곧 元星 露寢이 되며, 天帝가 常居하는 곳이다. … 또 天皇大帝는 그 精이 耀魄寶로, 萬神의 秘圖를 덮으며, 河海의 命紀를 모두 품수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곧 昊天上帝이다. 天一은 八氣, 九精의 政令을 관장하여 天極을 보좌한다. 太一은 16神의 法度를 관장하여 人極을 돕는다. 또 北斗에 權·衡 2星이 있는데, 天一·太一이 그 사이에 參居하여, 財로써 天地를 이루고 神道를 돕는다. 또 『漢書』에서 '天神貴者 太一, 佐曰五帝'라 하였다. 옛날 天子는 춘추로 太一을 제사하여 祀典에 배열하였으며, 그 내원이 오래

되었다. 지금 五帝가 오히려 大祀이니, 太一은 마땅히 降祀하지 말고 점점 더 중시하여야 한다. …" (『구당서 · 예의지』 p.931)

라 하여, 한대 천문 우주론의 중심으로 太一이 상정되었던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大祀에 준하여 예행할 것을 주청한다. 太一의 보좌인 五帝가 이미 大祀이므로 그보다 더 근원적인 太一, 天一은 당연히 大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精靈이 耀魄寶인 天皇大帝는 昊天上帝에 다름 아니며, 天一은 八氣, 九精의 政令을 관장하여 天極을 보좌하며, 太一은 16神의 法度를 관장하여 人極을 보좌한다. 이같은 이해 방식은 이미 한대에 유행하였던 天文星宿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武宗 會昌 원년(841) 12월, 中書門下의 奏言에서,

"天寶 3년(744) 10월 6일의 칙명에 따르면, '九宮貴神은 실로 水旱을 담당하여, 공로는 上帝를 도우며 德은 아래로 사람을 덮는다. … 매년 四時 初節에 中書門下에 攝祭토록 명한다.'라 하였다. 그 예에 준하면, 九宮은 昊天上帝 다음이며, 壇은 太淸宮의 太廟 위에 두며, 天地에 類한다. 天寶 3년 12월 玄宗이 친사하였고, 乾元 2년 정월 肅宗이 친사하였다." (『구당서 · 예의지』 p.930)

라 하여, 九宮神은 水旱을 담당하는 신격으로, 上帝를 보좌하는 공로가 있고 인민에 널리 호응을 받는, 昊天上帝의 보좌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곧 上帝에 준하는 의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그 九宮壇이 三淸宮 중 하나인 太淸宮 太廟 위에 있다하므로 도교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됨을 보여준다.

3 이상과 같이 九宮貴神은 唐武宗 시기에 또다시 중시되면서 그것이 지닌 천문 우주론적 기능을 더욱 확장하게 된다. 九宮貴神에다 五行, 八卦, 九星 등 여러가지 緯書學적인 요소들을 덧붙여 天文 曆法의 기본 단위로 운용하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武宗 會昌 2년(842) 정월 檢校左僕射 太常卿 王起, 廣文博士 盧就 등의 다음 奏言에 제시되어 있다.

"九宮貴神은 星座에 열위하는데, 왕왕 致福함으로 인해 祠壇을 세운다. 至尊하므로 稱臣하며, 東郊에 나아가 親拜한다. …『黃帝九宮經』 및 蕭吉의 『五行大義』에 '一宮의 神은 太一이며 그 星은 天蓬이며, 그 卦는 坎이며, 그 行은 水이며, 그 방위는 白이다. 2궁의 신은 攝提, 星은 天芮, 坤卦, 土行, 黑이다. 3궁의 신은

軒轅이며, 天衝星, 震卦, 木行, 方碧이다. 4궁의 신은 招搖, 天輔星, 巽卦, 木行, 方綠이다. 5궁의 신은 天符이며, 天禽星, 離卦, 土行, 方黃이다. 6궁의 신은 靑龍이며, 天心星, 乾卦, 金行, 方白이다. 7궁의 신은 咸池이며, 天柱星, 兌卦, 金行, 方赤이다. 8궁의 신은 太陰이며, 天任星, 艮卦, 土行, 方白이다. 9궁의 신은 天一이며, 天英星, 離卦, 火行, 方紫이다.'라 하였다. 그 八卦를 통할하고, 五行을 운행하고, 가운데에 土飛하고, 極에 數轉한다. … 그러나 萬物의 精으로는 列星을 위로 하며, 별의 운행은 반드시 사물에 繫考된다. 貴하여 居하니, 반드시 八氣를 통할하고, 萬神을 총제하며, 混茫을 權化하며, 陰陽에 품휘하니, 天地日月과 더불어 參相한다. 어찌 降等에 굴하겠는가?" (『구당서 · 예의지』 pp.932-933)

여기에 인용된 『黃帝九宮經』 및 『五行大義』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唐武宗 시기의 九星圖

| | | |
|---|---|---|
| 4宮 동남<br>招搖 天輔星<br>巽卦 木行 方綠 | 9宮 정남<br>天一 天英星<br>離卦 火行 方紫 | 2宮 서남<br>攝提 天芮星<br>坤卦 土行 方黑 |
| 3宮 정동<br>軒轅 天衝星<br>震卦 木行 方碧 | 5宮 중앙<br>天符 天禽星<br>離卦 土行 方黃 | 7宮 정서<br>咸池 天柱星<br>兌卦 金行 方赤 |
| 8宮 동북<br>太陰 天任星<br>艮卦 土行 方白 | 1宮 정북<br>太一 天蓬星<br>坎卦 水行 方白 | 6宮 서북<br>靑龍 天心星<br>乾卦 金行 方白 |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간력에도 기재되어 애용된 체제인데, 일명 九星圖라 칭한다. 달력에 歲次, 月建, 日辰, 納音五行, 十二直 등 여러가지 曆註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九星도 그러한 曆註의 하나이다. 九星法은 漢代부터 쓰여졌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唐武宗 시기에는 국가 사전 체계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민간력의 뒷장에 그려진 年神方位圖 안에 一白, 二黑, 三碧, 四綠, 五黃, 六白, 七赤, 八白, 九紫 등 9星이 씌어져 있는데, 이는 1년간의 길흉을 보기 위한 것으로 年白이라 한다. 또 음력 매월 초에는 曆書의 윗란에 月建과 아울러 九星圖가 그려져 있으며 이것이 月白이다. 9성은 曆日 밑에도 매일매일 배당되어 있어서 日白을 알

려준다.

이 9성을 역추적하면 古曆의 연대 측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9성의 배당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인데, 민간력에서는 현재도 뒷표지에 9성도와 아울러 연신방위도가 그려 있다. 조선시대의 大統曆, 時憲曆 등이 官曆이지만 역시 권두에 구성도가 크게 그려 있다. 9성법은 干支法과 다른 체제이지만 역시 역법을 표기하는 기능이 있다. 간지법의 순환 주기가 60년이라면, 9성법은 180년을 주기로 같은 간지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60갑자와 9성은 상중하의 三元으로 180년 단위를 계산하는 방식에 관계한다.

『曆事明元』에는 1144년 즉 皇統甲子(황통 4년)를 上元으로 하고, 1204년 즉 泰和甲子를 中元으로 하고, 그 다음 갑자(1264)를 下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皇統(1141-1148, 熙宗)과 泰和(1201-1208, 章宗)는 金나라의 연호이다. 이같이 상중하 3원으로 구분하여 각 원 60년씩 180년 주기로 9성을 거꾸로 순환시키고 상원갑자의 연백을 一白, 중원갑자와 하원갑자의 연백을 각기 四綠, 七赤으로 하였다. 9성은 中宮으로 대표한다.

한국에서의 3원 기점은 A.D.1444년을 上元甲子年이라 정하였다. 『觀象監藏板 正廟 壬寅 千歲曆』의 권두에는 10면 600년에 걸친 역원도가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면 上元甲子가 세종 26년(1444), 中元甲子가 연산군 10년(1504) 등이다. 한국의 상원갑자년은 중국의 하원갑자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이같이 별도로 상원갑자년을 정한 이유는 세종 때 역의 계산법이 뚜렷하게 알려졌고, 세종 26년(1444)에는 『七政算內篇』이 간행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한다.[4)]

이상과 같이, 한대 太一 중심의 우주론에서 八卦와 관련된 太一九宮圖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九宮貴神을 가미한 체제가 唐代 國家 祀典으로 편입되었으며, 거기에 다시 九星을 덧붙인 9성도가 唐代 曆法 체계의 하나로 성립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당대 명당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측천 시기 명당 제도에 스며든 黃老學적 세계관에 유비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당 기능이 축소된 현종 시기에 그 명당 기능을 대체한 듯한 九宮貴神 의례가 발달한 것은 그러한 황노학적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

4)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1985), pp.220-229

# Ⅶ. 宋代의 明堂儀禮와 九宮儀禮에 보이는 천문우주론적 세계관

## 1. 宋代의 天文曆法的 太一九宮儀禮

이렇듯 唐代에 새로운 天文曆法儀禮로 부각된 九宮儀禮는 宋代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北宋 초기 『開寶通禮』의 祀典 編制에서 九宮貴神은 春秋 二仲月로 제사되는 大祀 중의 하나였다.(『송사·예지』 p.2425) 太一九宮神位를 모시는 九宮神壇은 國門의 東郊에 있으며, 2층의 壇上에 小壇 아홉을 설치하였고, 四方 四陛 외에 西南에 坤道라 하는 계단이 있었으며, 행사자는 이를 통해 오르내렸다. 이 구궁단은 東郊 의례로 거행된 것이었으나, 이와 달리 泰山 封禪과 관련되는 것이 따로 마련되었는데, 泰山 아래 行宮의 동쪽에 설치된 2층의 九宮壇이 그것이다.(『송사·예지』 p.2506)

仁宗 시기에는 東郊의 九宮神壇을 다시 3층으로 증축하면서까지 그 의례를 매우 중시하였다.[5] 주목되는 것은 매년 天文 曆數에 따라 位次를 바꾸어 가면서 거행하는 九宮 의례의 운용법이다. 그 방법은 仁宗 景祐 2년(1035) 學士 章得象 등이 司天監生 于淵, 役人 單訓의 주장에 따라 정한 九宮太一法에 나와 있다.

> "郄良遇(극량우)의 『九宮法』에 실린 「飛棋立成圖」에 따르면, 九州가 주재하는 災福의 일을 推考하여 매년 하나씩 이동한다. … 매해 四孟月로 제사하며, 해에 따라 改位하여 行棋하는데, 이를 飛位라 부른다. 唐肅宗 乾元 이후 本位에 의거하여 제사하고는 飛易하지는 않았으며, 冬夏 두 번 제사로 줄였다.
>
> 宋朝가 이를 이었다. 지금 于淵 등이 소청한 바는 唐玄宗 天寶 초의 제사 원리에 합치되고, 또한 良遇의 「飛棋之圖」에 합치된다. 그러나 그 法은 본래 術家에 근본하니, 時祭의 經禮에 실리지 않았다. … 飛位의 글은 진실로 遵用할 만하다. 唐禮에 의거하여 九宮의 제사에 司天監 1員을 보내 제사케 하고, 매년 貴神이 飛棋하는 방위를 따라 차례로 돌면서 제사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仁宗 天聖 7年 己巳年(1029)부터 入曆하여, 太一을 一宮에 두고 매해 一位씩 나아가 飛棋 巡行하여 한바퀴 돌면 다시 시작한다." (『송사·예지』 p.2507)

---

5) 仁宗 慶曆儀에서는 매 자리마다 籩豆 12, 簠簋俎(보궤조) 둘을 사용하였으며, 仁宗 皇祐 시기에 3층으로 增壇하였다.(『송사·예지』 p.2507) ;徽宗의 『政和信義』에 따르면, 九宮貴神壇은 3층으로, 1층은 縱橫 14丈, 2층은 종횡 12장, 3층은 종횡 10장이며, 각 높이 3척이다. 위로는 方位에 따라 小壇 아홉이 있고, 각 높이 1척 5촌, 종횡 8척이다. 四陛, 坤道, 兩壝가 있으며, 每壝 25보로 舊制와 같다고 한다.(『송사·예지』 p.2510)

고 하여, 九宮의 飛棋巡行法에 따라 매년 각 貴神이 飛棋하는 방위를 따라 차례로 순환 제사하는 것임을 보여주며, 그 飛棋 과정을 曆法에까지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九宮 曆法이나 그 의례는 자신들이 말한 바와 같이 唐禮에 따른 것이다.

神宗의 熙寧 및 元豐 祀儀에 따르면, 그 예의 차서가 社稷에 비견되므로 大祀로 한다 하고, 九宮貴神의 祝文에는 "嗣天子臣某"이라 칭하고, 그 祝版은 會昌 故事 및 『開寶通禮』에 준하여 御名을 적되 稱臣치는 않는 의례 규정을 마련하였다.[6]

哲宗 元祐 7년(1092) 監察御史 安鼎의 奏言에 따르면, 이러한 구궁 의례가 漢代의 太一 祭天 의례에서 출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漢武帝가 처음 太一 一位를 제사하였고, 唐 天寶 초에 八宮을 兼祀하면서 九宮貴神이라 불렀다. 漢의 太一 제사에서는 7일간 매일 犢 하나씩 희생하였다. 唐은 天地에 준하여 제사하였다. 지금 春秋로 하는 九宮太一 제사에는 羊豕를 사용하면서, 그 四立日의 太一宮 十神 제사에는 모두 희생이 없이 素饌에 술만 있다.
> 『星經』을 상고하면, 太一 一星은 紫宮門 오른쪽, 天一의 남쪽에 있으며, 天之貴神이라 이름하고, 그 보좌를 五帝라 한다. 諸方位를 飛行하면서 三態의 上下를 밟으며, 天極星 중 明一者를 常居로 삼는다. 十六神을 부려 風雨 水旱 兵革 饑饉 疫疾 災害의 일을 주관한다. 『唐書』에서 '九宮貴神은 水旱을 담당하고, 太一은 十六神의 法度를 관장하여, 人極을 돕는다.'고 하였다. 『國祖會料』 역시 '天의 尊神 및 十精, 十六神 모두 風雨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十神太一, 九宮太一은 漢에서 제사한 太一과 같은 一神이다. 지금 十神에는 모두 소찬을 사용하고, 九宮에는 아울러 羊豕를 천신하니 非禮의 뜻에 가깝다." (『송사·예지』 p.2508)

고 하여, 安鼎은 十神과 九宮의 희생례가 차별된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예관들은 十神과 九宮太一이 각기 그 주관하는 바가 있어 一神이 아니므로, 唐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牲牢를 사용하였고 따로 祠壇이 없이 素食하는 예를 사용한 것이라 반론하였으며, 이에 舊制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로 보면, 당송대의 태일구궁 의례가 한대의 太一 세계관에 연원된 것인데, 唐 玄宗 때 九宮 체제로 확장되었으며, 北宋에 이르러서는 太一 儀禮가 春秋로 거행하는 九宮太一과 四立日로 거행하는 十神太一의 두 가지로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6) 神宗 元豐中, 太常博士 何洵直言, "熙寧祀儀, 九宮貴神 祝文稱 '嗣天子臣某', 以禮秩論之, 當與社稷爲比, 請依祀儀爲大祠. 其祝版卽依會昌故事及開寶通禮, 書御名不稱臣. : 『송사·예지』 p.2508

徽宗의 『政和新儀』에는 九宮太一과 十神太一이 분명히 다른 의례 형식임을 잘 보여준다. 九宮貴神壇의 壇壝 제도는 3층에 壇上의 小壇 아홉과 四陛, 坤道, 兩壝가 있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이지만, 十神太一을 제사하는 東·西·中太一宮의 殿閣 제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立春日에는 東太一宮에서 제사하고, 立夏·季夏土王日에는 中太一宮에서, 立秋日에는 西太一宮에서, 立冬日에는 中太一宮에서 제사한다.

그 (中太一宮)의 眞室殿에서 ① 五福太一은 在中하고 ② 君基太一은 在東하고 ③ 大游太一은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 延休殿은 ④ 四神太一, 承釐殿(승리전)은 ⑤ 臣基太一이 在東 西向 北上한다. 凝祐殿(응우전)은 ⑥ 直符太一, 臻福殿(진복전)은 ⑦ 民基太一이 在西 東向 北上하며, 膺慶殿(응경전)은 ⑧ 小游太一이 在中하고 ⑨ 天一太一은 在東하고 ⑩ 地一太一은 在西한다. 靈貺殿(영황전)은 ⑪ 太歲가 在中하고 ⑫ 太陰이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 三皇, 五方帝, 日月, 五星, 二十八宿, 十日, 十二辰, 天地水 三官, 五行, 九宮, 八卦, 五嶽, 四海, 四瀆, 十二山神 등을 모두 從祀한다.

東·西太一宮은 이에 준한다. 東太一宮 大殿은 ① 五福太一이 在東하고 ② 君基太一이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 ③ 大游太一殿은 大殿의 북쪽에 위치하며 南向이다. ④ 臣基太一殿은 在南이며 北向이다. ⑤ 小游太一, ⑥ 直符太一, ⑦ 四神太一殿은 大殿의 동쪽에 위치하며 西向 北上이다. ⑧ 天一太一, ⑨ 民基太一, ⑩ 地一太一은 大殿의 서쪽에 위치하며 東向 北上이다.

西太一宮의 黃庭殿은 ① 五福이 在中하고 ② 君基가 在東하고 ③ 大游가 在西하며, 均福殿은 ④ 小游가 在中하며, 모두 南向이다. 延貺殿(연황전)은 ⑤ 天一이 在中하고 ⑥ 四神이 在南하고 ⑦ 臣基가 在北하며, 모두 西向이다. 資祐殿은 ⑧ 地一이 在中하고 ⑨ 民基가 在南하고 ⑩ 直符가 在(東)北하며, 모두 東向한다." (『송사·예지』 pp.2509-2510)

이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中太一宮의 十神太一 배치도 (立夏·季夏土王日 및 立冬日에 제사)

| 眞室殿 | | | 延休殿 | 承釐殿 | 凝祐殿 | 臻福殿 | 膺慶殿 | | | 靈貺殿 | |
|---|---|---|---|---|---|---|---|---|---|---|---|
| 五福太一 | 君基太一 | 大游太一 | 四神太一 | 臣基太一 | 直符太一 | 民基太一 | 小游太一 | 天一太一 | 地一太一 | 太歲 | 太陰 |
| 在中南向 | 在東南向 | 在西南向 | 在東西向 | 在東西向 | 在西東向 | 在西東向 | 在中 | 在東 | 在西 | 在中 | 在西 |

<표 6> 東太一宮의 十神太一 배치도 (立春日에 제사)

| 東太一宮 大殿 | | 大游 | 臣基 | 小游 | 直符 | 四神 | 天一 | 民基 | 地一 |
|---|---|---|---|---|---|---|---|---|---|
| 五福太一 | 君基太一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太一殿 |
| 在東 南向 | 在西 南向 | 大殿之 北 南向 | 大殿之 南 北向 | 大殿의 동쪽 西向 北上 | | | 大殿之西 東向 北上 | | |

<표 7> 西太一宮의 十神太一 배치도 (立秋日에 제사)

| 黃庭殿 | | | 均福殿 | 延貺殿 | | | 資祐殿 | | |
|---|---|---|---|---|---|---|---|---|---|
| 五福 太一 | 君基 太一 | 大游 太一 | 小游 太一 | 天一 太一 | 四神 太一 | 臣基 太一 | 地一 太一 | 民基 太一 | 直符 太一 |
| 在中 南向 | 在東 南向 | 在西 南向 | 在中 南向 | 在中 西向 | 在南 西向 | 在北 西向 | 在中 東向 | 在西 東向 | 在北 東向 |

十神太一을 모시는 이상의 세 가지 宮殿 중에서, 東太一宮은 五福太一이 東南巽宮에 들어오는 太宗 雍熙 원년(984) 甲申年을 기하여 修建되었으며, 西太一宮은 五福太一이 西南坤位로 들어오는 仁宗 天聖 7년(1029)을 기하여 修建되었다. 나머지 中太一宮 건립은 司天 中官正 周琮의 奏請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神宗 熙寧 4년(1071)에 奏言하기를,

> "『太一經』 추산으로 熙寧 7년 甲寅年(1074)은 太一陽九, 百六之數로 復元의 처음이 된다. 『太一經』에서 '太歲가 陽九之災에 있으면, 太一에 106가지의 厄이 끼게 되니, 모두 入元의 初終에 있다.'라 하였다. 지금 陽九, 百六이 癸丑, 甲寅年에 해당하니 災厄의 會가 된다. 그러나 五福太一이 中都로 들어가니 災異가 소멸되어 祥瑞로 될 것이다." (『송사·예지』 pp.2507-2508)

라 占候하였는데, 이를 따라 五福太一이 中都로 들어오는 熙寧 7년(1074)을 기하여 中太一宮을 集禧觀에 건립케 된다. 또한 그는 十太一神을 大祀로 거행하고 通天冠, 絳紗袍를 並用하는 祭祀 儀節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송을 이은 남송 역시 이에 대한 의례를 계승하였다. 南宋 高宗 紹興 11년(1141), 太常丞 朱輅(주로)는 "九宮貴神이 주관하는 風 雨 霜 雪 雨 雹 疫 등은 매우 중요하니 이에 대한 祀典 거행"을 奏請하였으며, 太常寺 主簿 林大鼐 역시 "十神太一, 九宮太一은 모두 天의 貴神으로, 國朝가 둘로 나누었으며 둘다 大祀로 행

하였음"을 말하였다. 이에 臨安府 國城의 동쪽에 九宮壇 축성을 조칙하여 紹興 18년(1148) 완성되었는데, 그 의례를 上帝 祭祀처럼 하였다. 十太一位를 殿上에 南面西上으로 설위하였으며, 從祀는 東廡(지붕 무) 98, 西廡 97에 모두 北上으로 하였다. 孝宗 受禪 이후 本命殿을 건립하여 崇禧라 이름하였으며, 光宗 또한 介福殿을 옮기면서 이름을 崇福殿이라 새로이 하였다. (『송사·예지』 p.2510)

이상과 같이 唐代에 정립된 九宮貴神 儀禮는 宋代에도 전승되어 주요한 國家 祀典의 하나로 기능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宋에서는 九宮太一과 十神太一이라는 보다 복잡한 체계로 확장 분화되었다. 전자는 九宮의 飛棋行年法에 따른 天文 曆法 儀禮로 운영되었으며, 후자는 五福太一을 비롯한 十神太一을 제사함으로써 風雨 水旱 兵革 饑饉 疫疾 災害 등 나라의 吉凶禍福을 다스리는 天文 災異 儀禮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太一이 지니는 우주론적 맥락을 중시한 것인데, 唐宋人들이 스스로 그 연원을 漢武帝의 太一 祭天 故事에서 구하였듯이, 太一九宮 儀禮는 太一을 천상변화의 중심으로 삼았던 漢代의 天文宇宙論 전통을 계승한 체계이다. 더욱이 國家祀典의 중심인 大祀로 거행되었으므로, 그것이 지니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緯書적인 맥락을 지니는 漢代의 太一 世界觀이 唐宋代에 더욱 활발한 기능을 보였다는 것은 중국인들의 사유 체계에서 天文宇宙論이 지니는 깊은 친화성을 다시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 2. 宋代의 明堂儀禮와 報本 祭天儀禮적 성격

끝으로, 이상의 태일구궁의례가 지니는 의의나 당송대의 명당의례 흐름을 이해하는 일환으로 송대의 명당의례가 전개되는 과정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송대의 국가의례는 건국 초기 開寶年間(968-976)에 편찬된 『開寶通禮』 200권에서 기본 틀거리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唐玄宗의 『開元禮』를 손익보충한 것이라 하듯이 唐代의 의례제도를 계승한 측면에서 조망된다.(『宋史·禮志』 p.2424)

송대 역시 五禮를 중심으로 祀典을 편제하였으며, 그 중 吉禮는 제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大祀 30가지, 中祀 9가지, 小祀 9가지로 등급 분류하였다. 그 후에 다시 高禖, 大小 酺神(재해내리는 귀신 포) 등을 증설하여 大祀에 모두 42가지가 되었다고 한다.(『송사·예지』 p.2425)

<표 8> 宋代의 大中小祀

| | |
|---|---|
| 大 祀<br>30가지 | ①正月 上辛 祈穀祀 ②孟夏 雩祀 ③季秋 明堂 大享<br>④冬至 昊天上帝 圜丘祀 ⑤正月 上辛 又祀感生帝<br>⑥四立 및 土王日의 五方帝 祭祀 ⑦春分 朝日과 秋分 夕月<br>⑧立春, 立秋의 東西 太一 祭祀 ⑨臘日의 百神 大蜡祭<br>⑩夏至의 皇地祇 祭祀 ⑪孟冬의 神州地祇 祭祀<br>⑫四孟, 季冬의 太廟·后廟 薦享 ⑬春秋 二仲月 및 臘日의 太社·太稷 祭祀<br>⑭春秋 二仲月의 九宮貴神 祭祀 |
| 中 祀<br>9가지 | ①仲春의 五龍祭 ②立春後 丑日의 風師祀<br>③立春後 亥日 先農 享祀 ④季春 巳日 先蠶 享祀 ⑤立夏後 申日 雨師祀<br>⑥春秋 二仲月 上丁日의 文宣王 釋奠 ⑦春秋 二仲月 上戊日의 武成王 釋奠 |
| 小 祀<br>9가지 | ①仲春의 馬祖祀 ②仲夏의 先牧 享祀 ③仲秋의 馬社祭 ④仲冬의 馬步祭<br>⑤季夏 土王日의 中霤祀 ⑥立秋後 辰日의 靈星祀 ⑦秋分의 壽星 享祀<br>⑧立冬後 亥日의 司中·司命·司人·司祿 祭祀 ⑨孟冬의 司寒祭 |
| 諸 州<br>奉 祀 | ①五郊 迎氣日에 岳·鎭·海·瀆 祭祀<br>②春秋 二仲月에 先代 帝王 및 周六廟 享祀 (이상 中祀에 준함) |
| 州 縣<br>奉 祀 | ①州縣 社稷 祭祀 ②文宣王 釋奠 ③風雨 祭祀 (이상 小祀에 준함) |

이로보면 송대의 주요 祀天은 唐代와 같은 正月 上辛의 祈穀祀(又祀感生帝), 孟夏의 雩祀, 季秋의 明堂 大享, 冬至의 昊天上帝 圜丘祀의 4가지이며, 祭地 역시 夏至 皇地祇祀, 孟冬 神州地祇祀의 2가지이다. 북송의 "天地大祭有七"(『송사·예지』 p.2470)이라 한 것은 正月 上辛의 感生帝祀를 독립하여 말한 셈이다. 여기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立春, 立秋의 東西 太一 祭祀와 春秋 二仲月의 九宮貴神 祭祀가 大祀로 입전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송대의 명당 제도도 隋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을철의 祭天 행사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宋初 明堂은 皇帝의 親祀가 아니라 有司攝事로 거행되어,(『송사·예지』 p.2465) 正月 南郊의 親祀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듯하다. 冬至 圜丘 역시 『開寶通禮』에서는 有司攝事였다.(『송사·예지』 p.2437)

그러다 北宋 중기의 仁宗代에 이르러 明堂 大享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親祀로 승격된다.

皇祐 2년(1050) 3월, 仁宗은 "대저 明堂이란 布政의 宮으로 諸侯를 朝會하는 자

리이며, 天子의 路寢이니, 곧 지금의 大慶殿이다. 明道初(1033) 이곳에서 처음으로 天地合祀하였고 이제 親祀로 삼으려 하니, 오히려 郊壇寓祭보다 높다. 그러니 大慶殿을 明堂으로 삼아 내부를 五室로 나누라."(『송사·예제』 p.2465) 하였으며, 또한 "郊를 옮겨 大享으로 삼은 것은 백성들의 祈福을 위함이니, 마땅히 皇地祇를 合祭하고, 太祖, 太宗, 眞宗을 並配하며, 五帝, 神州 역시 親獻하라. 日月, 河海 諸神은 모두 圜丘 從祀의 숫자대로 하라."(『송사·예제』 p.2466)는 조칙을 내려, 郊祀에 준하는 의례적 지위를 明堂에 부여한다.

이에 그해 9월 25일 大慶殿을 개조한 明堂五室에서 親祀하였는데, 圜丘의 天地合祭 형식을 따라 堂上 중앙에서 昊天上帝와 皇地祇를 合祭하였다. 이를 이어 五方帝, 神州, 祖宗(太祖, 太宗, 眞宗의 三配帝)을 堂上 中階에 모셨으며, 그 다음으로 大明(日)·夜明(月), 天皇大帝, 北極 신위를 설위하였고, 그 아래로 五人帝(太昊, 神農, 軒轅, 少昊, 高陽氏), 五官神(句芒, 祝融, 后土, 蓐收, 玄冥) 및 內官, 中官, 外官, 五星 등의 별자리 신격과 岳·鎭·海·瀆, 丘·陵 墳·衍 原·隰 등의 지리 신격을 從祀하였다. 이들은 중앙과 동서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설위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송사·예제』 p.2467)

<표 9> 仁宗代 明堂 大享의 神位 次序

| | 西階側 神位 | 中階側 神位 | 東階側 神位 |
|---|---|---|---|
| 堂上 大祀級 | | 昊天上帝, 皇地祇 | |
| | 黃帝, 白帝, 黑帝, | (五方帝) | 靑帝, 赤帝 |
| | | (神 州) | 神州地祇 |
| | | (祖 宗) | 三配帝(太祖, 太宗, 眞宗) |
| 中祀級 | 夜明 | (日 月) | 大明 |
| | 天皇大帝 | (北極星) | 北極 |
| | 軒轅, 少昊, 高陽氏 | (五人帝) | 太昊, 神農氏 |
| 小祀級 | 內官, 中官, 五官 | (庭 中) | 內官, 中官, 五官 |
| | 丘·陵 墳·衍 原·隰 | (每 方) | 丘·陵 墳·衍 原·隰 |
| | 外官, 五星, 衆星 | (東西廂) | 外官, 五星, 衆星 |

이상에서 隋唐代의 것과 비교하여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 북송의 명당이 天地合祭 형식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이다. 五方上帝를 주신으로 하였던 唐高祖의 武德令

이나 거기에 昊天上帝를 주신으로 덧붙였던 唐玄宗의 開元禮와 달리, 宋仁宗 시기에는 昊天上帝와 皇地祇를 合祀하여 郊祀 祭天과 유사한 형식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명당 향사에 병설되는 신위 구성을 보더라도 天文 地理 신격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唐則天시기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仁宗 嘉祐 7년(1062) 7월에 제기된 有司의 비판은 바로 이같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 "皇祐年間(의 明堂)은 南郊의 百神之位를 參用하였는데, 祭法에 응하지 않은 것이었다. 마땅히 隋唐의 舊制와 같이, 昊天上帝와 五方帝位를 설하고 眞宗으로 配祀하면서, 五人帝, 五官神을 從祀하되,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기를 바란다." (『송사 · 예지』, p.2468)

有司의 이 奏言은 皇地祇位, 神州地祇 및 그에 관련된 지리적 신격들을 모두 혁파하기를 주창한 것으로 天地合祭 형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昊天上帝뿐만 아니라 五方帝에게도 황제가 親獻하기를 제청하였는데, 이 역시 五方上帝를 중시하는 隋唐의 舊制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요청한 대목이다.(『송사 · 예지』, p.2468)

다음으로 明堂의 配帝에 近考 嚴父인 眞宗과 不遷之位인 太祖, 太宗의 셋으로 한 점도 주목된다. 太祖는 帝者之祖로 周의 后稷에 비견되며, 太宗, 眞宗은 帝者之宗으로 周의 文王, 武王에 비유되어, 전례에 없던 祖宗의 三並配(=1祖2宗)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太宗이 포함되는 배경에는 태종이 태조의 동생으로 왕이 되었고, 眞宗은 태종의 3자, 仁宗은 진종의 6자이기 때문에, 인종에게서 혈연적인 近考는 태조가 아니라 태종인 관계가 명당의 配帝 문제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英宗이 즉위한 뒤에는 仁宗의 配祀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었다. 영종은 인종의 종질이다. 仁宗이 아무리 크나큰 공덕이 있지만 文王 · 武王의 二祧之位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眞宗 대신에 大享될 수 없다는 반대(諫官 司馬光)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周易』의 配考와 『孝經』의 嚴父 고사에 의거하여 42년간의 태평을 가져다준 仁宗의 配祀를 주장한 觀文殿學士 孫抃(손변)의 의론을 따라 결국 仁宗을 配帝로 삼게된다. 그렇다면 眞宗을 밀어내고 仁宗을 배사하게 된 바에는 唐의 故事를 따라 眞宗은 雩祀의 配帝로, 太宗은 祈穀 · 神州의 配帝로 遞遷하자는 방안(御使 趙鼎)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明堂은 嚴父之道에 따라 眞宗의 配天을 혁파한 것이므로 雩祀에 다시 配祀함은 嚴父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學士 王珪)으로 무마되기도

하였다.(『송사 · 예지』 pp.2468-2470) 이렇게 송대의 명당의례에는 配帝 문제가 중요한 논쟁거리로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神宗 元豐年間(1078-1085)에는 鄭玄에 따른 六天說을 취할 수 없다면서 昊天上帝 一座만 설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明堂의 配帝로 英宗 一位만 하는 것이 嚴父 配上帝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英宗만 專配되기도 하였다.(『송사 · 예지』 p.2471)

한편, 인종의 皇祐年間 이래 사용되었던 大慶殿 대신에 새로운 명당 조영에 대한 논의가 徽宗 政和 5년(1115)에 제기되어, 기존의 秘書省을 宣德門東으로 옮기고 그곳에다 새로운 명당을 조영케 된다. 政和 7년(1117) 4월에 완성된 이 明堂 건물은 唐代에도 이미 제출되었던 천문우주론적 맥락의 규격을 따른다. 上圜은 象天한 것이며, 下方은 法地한 것이며, 四戶는 四序에 合한 것이며, 八窗은 八節에 응한 것이며, 五室은 五行을 상징한 것이고, 十二堂은 聽十二朔하는 것이라 하였다.(『송사 · 예지』 p.2473) 새 명당에서는 嚴父 配帝만 專祭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聽朔 頒布하는 방안도 제출되었으나 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송사 · 예지』 p.2474)

南宋 高宗의 초기에는 인종이 大慶殿을 명당으로 사용한 고사에 비추어, 御殿에서 明堂 禮行키로 하였다.(『송사 · 예지』 p.2477) 紹興 31년(1161) 欽宗(북송의 마지막 임금)의 상을 당하여 親行한 明堂 享祀에 따르면, 神宗의 熙寧禮를 사용하여 堂上에서 五天帝와 五人帝를, 東廂에서 五官神을 제사하였으며 나머지 從祀 神位들은 모두 혁파하였다 한다. 그러다 孝宗 淳熙 6년(1179)에는 다시 南郊祀처럼 天地合祭로 복귀하고 祖宗을 並配하며 百神을 從祀하는 의론이 제기되었다.(『송사 · 예지』 p.2478)

理宗代의 明堂 大享에서는 9월내 次辛日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理宗 즉위년(寧宗 嘉定 17년, 1224)의 경우에는 9월 28일 辛卯日을 사용하였다. 理宗 淳祐 3년(1243)에는 嚴父 配侑의 典禮를 폐지한 적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三后並侑說이 제안되어, 太祖, 太宗, 寧宗의 셋을 並配하기로 하였다. 寶祐 5년(1257) 9월 辛酉日의 大享에서는 다시 南宋의 중흥조인 高宗까지 升侑하여, 1祖3宗의 四並配 제도를 마련하였다. 度宗 咸淳 5년(1269)의 大享에서는 寧宗 대신에 理宗을 太祖, 太宗, 高宗의 祖宗과 더불어 並配하였다.(『송사 · 예지』 p.2479)

이상과 같이 송대의 명당의례는 季秋의 9월을 정례적 시기로 삼은 가을철 제천의례로 운용되었으며, 그 주신을 五天帝에서 구하기도 하였지만 天地合祭 형식에다 각종 天文 地理 신격들이 망라되는 형식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南郊 祭天과 같은

郊祀의 성격으로 운용된 점이 크다 하겠다. 아울러 徽宗의 政和年間에 새로운 明堂 건물이 조영되면서는 이를 우주론적인 聖所로 삼으려는 맥락이 역시 대두되지만, 태일구궁의례나 唐則天의 명당의례에서 보이던 것과 같은 천문우주론적 운용은 활발하지 않다. 그보다는 명당의 전통적인 配帝였던 近考 嚴父에다 不遷之位의 太祖와 太宗을 합한 三並配 또는 四並配의 複數 祖宗並配 형식이 두드러지는 흐름에서 王者 자신의 報本 祭天儀禮적인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엿보게 된다.

## Ⅷ.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唐宋代의 明堂儀禮 변화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지니는 天文宇宙論적 배경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고대에 天命을 구현하는 지상의 우주론적 聖所로 제시된 明堂을 국가의 주요 祀典으로 끌어올림으로써 王者는 자신의 정치적인 통합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唐初는 隋代의 禮制를 계승한 맥락에서 明堂 大享을 秋季의 대표적인 祭天儀禮로 위치지웠으며, 역시 隋代 이래 정립된 夏季의 孟夏 雩祀 祭天과 더불어 새로운 제천의례로 주목되었다. 이로써 국가의 대사급 제천의례는 기존에 이미 강조되었던 冬至의 圓丘 祭天과 孟春 正月의 南郊 祭天과 함께 四季節 祭天 體系가 뚜렷이 정립되었다.

그런데 새로이 부상한 明堂 大享에 걸맞는 祭場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唐初는 기존의 圓丘壇을 공용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唐高祖에서부터 太宗, 高宗에 이르기까지 明堂에 관한 숱한 논의를 펼쳐, 天文宇宙論적 상징성이 가장 이상적으로 투영된 明堂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분분한 쟁론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周代를 정치적인 연원으로 삼아 국호를 周로 개칭한 則天武后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明堂 造營이 성사되었다.

則天은 垂拱 4년(688) 萬象神宮이라 이름붙인 明堂의 낙성을 이루면서, 이곳을 天子 布政 및 政治 敎化의 중심 殿堂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季秋 시기가 아닌 新年의 正月 祭天으로 격상시켰으며, 그에 따라 신위도 기존의 五帝에다 昊天上帝와 皇地祇를 앞세운 天地合祭 형식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載初 원년(690)의 改元에 이르러 기존 寅月(1월) 歲首의 夏正에서 子月(11월) 歲首의 周正으로 改曆을 단행하였으므로, 이때의 정월이란 春正月이 아니라 冬至가 든 冬正月이 된다. 따라

서 則天 시대의 明堂 大享은 歲首에 거행됨으로 신년 제천의례 성격을 지니며, 또한 日南至하는 冬至日을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曆法周天의 紀元儀禮 성격을 동시에 띄게 되었다. 특히 載初 원년(690) 冬正月 庚辰朔 冬至日의 明堂 親享은 해와 달의 주기가 모두 시작되는 기점을 제사 시기로 삼은 것이므로 그러한 天文曆法的 紀元儀禮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 나아가 聖曆 원년(698)의 正月 親享에서는 明堂에서 四時 孟月과 季夏의 五時에 時令(시기마다 달라지는 하늘의 政令)을 告朔하는 聽朔儀禮를 거행키로 하는 등 天文曆法적 의미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처럼 측천 시대는 중국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明堂이 지닌 우주론적 의미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측천 이후 明堂 大享은 다시금 季秋의 圜丘 행사로 복원되면서 현저히 그 기능이 줄어든다. 唐玄宗 시기에 이르면 축소된 명당의례 대신에 새로운 九宮鬼神 儀禮가 성립되면서 명당이 지녔던 天文曆法적 의례 기능이 다시 재현된다. 九宮儀禮는 太一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던 漢代의 天文宇宙論 전통에 연원을 둔다. 唐武宗 시기에는 그것이 더욱 신비화되어 太一, 攝提 등 아홉 星神이 每年의 운세와 국가의 길흉화복을 占星한다는 九星圖 형식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는 九宮星宿로 天文曆法의 순환성을 담아내려한 것인데, 근대 이전의 曆書에 附註되는 年神方位圖로 전승되면서 민간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北宋과 南宋에서도 그 唐代의 九宮儀禮를 더욱 확충하여, 天文曆法的 九宮太一儀禮와 天文災異論的 十神太一儀禮라는 보다 복잡한 체계로 분화된다. 전자의 구궁태일의례는 매년의 天文曆數에 따라 각 九宮의 星神이 飛棋하는 방위를 차례로 순환 제사하는 일종의 天文曆法 의례로 운용된 것이며, 후자의 십신태일의례는 五福太一을 비롯한 十神의 太一을 제사함으로써 風雨 水旱 兵革 등 국가의 吉凶禍福을 다스리는 天文災異 의례로 전개된 것이다. 이들 구궁의례는 宋初부터 春秋 二仲月로 거행하는 大祀로 운용되었고, 또 仁宗 시기에는 東郊에 3층짜리 九宮神壇을 증축하는 등 송대의 국가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송대의 明堂儀禮는 季秋 祭天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복수의 祖宗並配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던 데서 보이듯이 王者의 報本 祭天儀禮적 측면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 같이 당송대에 이르기까지 漢代의 天文宇宙論적 세계관이 여전히 주요한 우주론적 전거를 이루어 활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天文과 人文의 두 세계를 밀접히 연관지으려는 그들의 줄기찬 사유 형식을 엿보게 된다. 지금까지 우

리는 국가 의례적 차원에 반영되어 있는 천문사상의 흔적을 천착하였지만, 이외에 민간의 풍습이나 문화사 속에서 이같은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동양의 전근대 세계관을 더욱 다양하게 엮어내는 일이라면 본고가 지니는 작업 의의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